

클릭하면 '명작' 들이 보인다

부다피아 갤러리 확대 ... 펜화·단청 등 볼거리 풍성

산사의 아름다움을 펜으로 그려내는 펜화가 김영택 화백, 동자승의 맑은 미소를 담아낸 동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 스님, 단청계 거장 허석선 선생의 계보를 잇고 있는 김윤오씨, 서도의 선(禪)에 선(禪)의 정신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예가 윤상민씨, 불교문화유산을 30여년간 카메라 렌즈에 담은 안장현 작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이 시대 대표적인 불교계 화가, 단청장, 사진작가의 작품 수백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작품을 '상설전시'로 만날 수 있는 곳은 불교계 최대포털 부다피아(www.buddhopia.com) 갤러리. 현대불교 불교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부다피아가 개설 10주년을 맞아 8월 3일 갤러리를 확대 오픈했다. 지난 1월 첫 오픈에 이어 7개월에 걸친 추가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대폭 보강, 20여 개인과 단체의 작품 500여 점을 보유함으로써 부다피아 갤러리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불교문화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됐다.

유명작가 작품 한자리에
부다피아 갤러리는 초대전 형식의 '초대갤러리', 작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아트갤러리'와 일반인 참여가 가능한 '테마갤러리' '디카갤러리' '포토에세이'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초대갤러리에는 △김영택의 '펜화기행' △문범강 교수의 '무질서에서 생명찾기' △김규현 거사의 '역(逆) 왕오전축국전별곡' △한국불교미술관의 '안양암에 담긴 중생의 염원과 꿈' △사찰문화연구원 '팔상성도 전시회'가 마련돼 있다.

특히 김규현 거사의 갤러리에는 20여 년간 혜초 스님을 연구하고, 7차례에 걸쳐 인도를 여행하면서 찾아낸 혜초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김규현 거사가 직접 찍은 사진뿐 아니라 그 동안 낫다뉴스에 연재했던 글이 함께 수록돼 혜초를 따라가며 느낀 감동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또 펜화라는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김영택 화백의 갤러리에서는 한국불교건축관의 아름다움을 그만의 개성 있는 필치로 만날 수 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교건축의 섬세하고도 새로운 면모를 음미할 수 있다.

갑사 송광사 세계사 용문사 통도사 해인사 등의 팔상성도를 모아놓은 사찰문화연구원의 갤러리도 흥미롭다. 사찰문화연구원 갤러리의 감상 포인트는 여러 사찰의 팔상성도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묘사한 팔상성도는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 태자시절 고뇌를 겪기까지의 전반부 네 장면과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열반하는 후반부 네 장면으로 구성된다. 사찰의 팔상성도는 이러한 정형화된 틀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서예가 윤상민씨의 작품 '춘요(春曉)'

각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아트갤러리에 있는 △김윤오 화백의 '단청전' △천성철 화백의 '내 마음의 부처' 등의 불교미술 갤러리와 △안장현 작가의 '사원건축' △라규채 작가의 '천년의 푸른 창' △현대불교신문 고영배 사진기자의 '경주 남산전' 등의 사진 갤러리 서예가 윤상민씨의 '서예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열린 개인 갤러리
유명작가의 작품을 집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부다피아 갤러리가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훌륭한 작품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부다피아 갤러리는 작품 능력과 자기 갤러리 관리 의지를 갖고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 온라인 상의 상설전시장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부다피아가 개발한 웹빌더를 이용하면, 갤러리 생성은 물론 업데이트까지 용이해 손쉽게 자신만의 갤러리를 꾸밀 수 있다.

이처럼 초보자부터 유명작가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대폭 열어놓은 데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부다피아의 야심이 읽혀진다. 불교정보센터 실장 정월 스님은 "부다피아 갤러리의 목표는 불교문화의 확산 및 포교"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문화 작품들을 모아놓은 부다피아 갤러리가 비주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오픈 취지를 밝혔다. (02)2004-8279

박익순 기자 info@buddhopia.com



펜화가 김영택씨의 '회암사석등'.



사진작가 안장현씨의 '완주 송광사 중루'.



문범강 화백의 'Deja vu Sutra'.



팔상성도 중 하나인 녹원전법도(鹿苑傳法圖).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제자를 대상으로 설법하는 장면이다. 위에서부터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갑사의 녹원전법도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0>

더위

금년 여름은 특히 덥다. 기상학자들은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평균 1.6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1.6도라면 미미한 것 같지만, 몸의 체온이 정상 체온에서 38도로 오를 때 느끼는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그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임을 실감할 수 있다. 온도가 상승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를 짐작하기는 힘들다. 어떤 학자는 수천 년간의 큰 시각에서 무시할 만한 변화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마치 말을 옆 부분 곡선을 보았을 때, 머리로부터 등에서 최소가 되었다가 공중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양

적으로 보면 에너지 흐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잉크 물을 물에 풀면 잉크 입자가 멋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멋대로'의 정도가 온도이다. 온도가 높다는 뜻은 잉크 알갱이가 멋대로 운동이 매우 커서 빨리 퍼져 나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덥게 느끼는 것은 공기 분자의 멋대로 운동이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만약 덥게 느끼지 못한다면, 대응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 몸의 생체 화학이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위를 느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온도 높아지면 분자의 '멋대로' 운동 활발 인간의 무자비한 탐욕이 온난화 부추겨

과 흡사한 것으로 본다. 설사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등의 최저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 변화가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얼음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걱정한다. 마치 말을 공중이 쪽에서 보면, 말등의 최소점에 밀려 떨어지는 모양과 흡사하다. 약간의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선사시절인 벽암록에 더위에 대한 선문답이 나온다. '더위(혹은 추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더위(혹은 추위)가 너를 죽이는 곳으로!'라고 말하는 동산선사의 답은 매섭기만 하다. 더위라는 느낌을 오히려 무아를 구현하는 깨달음의 수단으로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한 느낌이 단지 알갱이간의 간섭 현상(공기 입자와 세포에 존재하는 이온 알갱이간)이라는 과학자들의 발견을 시작으로 표현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느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과 같은 탐욕에서 벗어나서, 지구의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공위성이 밤에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서방 유럽, 미국 동·서부, 그리고 일본, 남한, 중국의 동해안은 참으로 불야성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무자비한 탐욕이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온도란 과학

■서울대 전기공학부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영이 충만한 곳!

동해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 낙산사 흥련암 10분 소요
- ▶ 휴휴암 15분 소요
- ▶ 불탑사 10분 소요
-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671-6079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시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번비가 나았다.
- 혈액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1Box(60포) 15만원 2Box(120포)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P : 011-9242-8292
◆ 동결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공포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